



## "LA한국교육원, 2024 하반기 뿌리교육 프로그램 개강 - 16개 주에서 376명 수강"

- 캘리포니아를 비롯 뉴욕 · 텍사스 · 몬타나 등 16개 주에서 한국어 등 온라인 수업 참여, 전년 동기 대비 5개주 증가
- LA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어, 서예, 한국무용, 난타, 점토공예 등 오프라인 수업도 성황리 진행

- LA한국교육원(원장 강전훈)은 8월 17일 2024 하반기 뿌리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현지 교민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과 한민족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이번 학기 뿌리교육 프로그램에는 총 376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며, 25개의 다채로운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종이접기 등 온라인 강좌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콜로라도, 플로리다, 하와이, 켄터키, 메릴랜드, 몬타나,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등 총 16개주에서 한인 2·3세대들이 등록하였습니다.
- 또한 LA한국교육원의 강의실에서도 한국어, 서예, 태권도, 태권, 난타 등을 오프라인으로 개설하여 한국어를 더욱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양한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뿌리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수강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한글 기초 온라인 수업을 저학년(K-2)과 고학년(2학년 이상)으로 나누어, 한글을 처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또래와 함께 연령에 맞는 교수법을 통하여 더욱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급 과정인 한국어 4-2반을 신설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몬타나 거주하는 학부모인 Jennifer Howells씨는 “보스맨에 한글학교가 있긴 하지만,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가까운 한글학교를 찾아보던 중,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LA한국교육원의 뿌리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정말 기뻐다. 우리 부부는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싶었지만, 능숙하지 못해 늘 아쉬웠는데, 이제 LA한국교육원 온라인 수업 덕분에 집에서도 자녀들이 편리하게 한국어와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 강전훈 교육원장은 “이번 학기 뿌리교육 프로그램에서 타주에서의 참가율이 급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현지 교민 자녀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우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미주 각지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습니다.

\*2023년 가을학기 11개주에서, 2024년 가을학기 16개주로 증가

※ 관련문의 : LA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200, LA, CA 90005)

(213-386-3112) Homepage: [www.kecla.org](http://www.kecla.org)

<b>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b>	담당자	이상범 부원장 (213-386-3112)
	담당자	

붙임 : 사진 4부. 끝.



사진 1: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사진 2 : 서예반 학생들이 판본체를 연습하는 모습



사진 3: 한국전통무용의 기본동작인 걷기(굴신)을 배우는 모습



사진 4: 난타의 시작을 알리는 북 연주